



‘이사야’ 익명 카페 동향 보고

2015. 4. 6.

기획조정실

1.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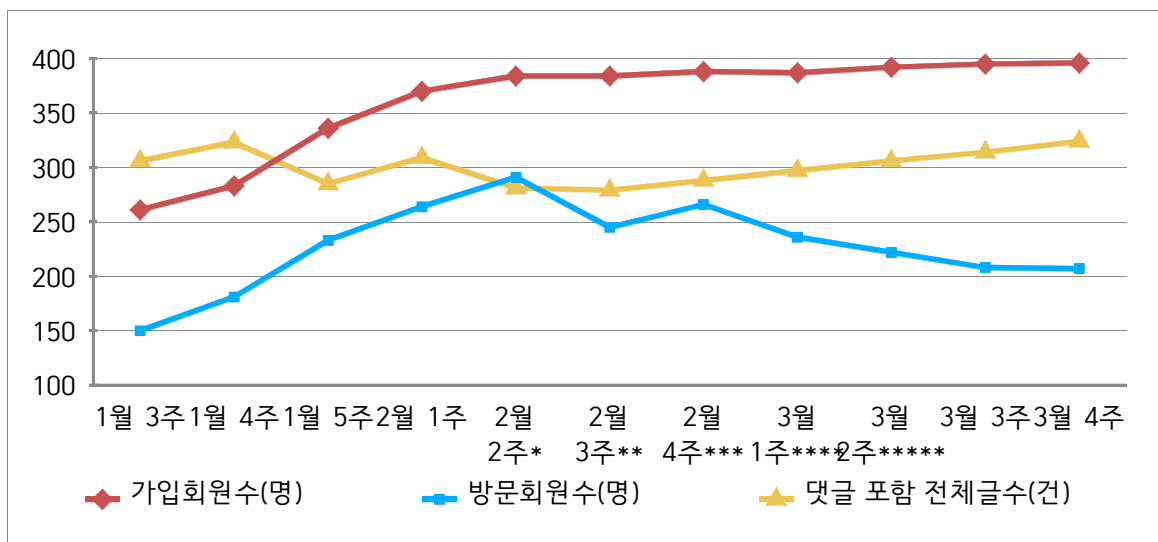
■ 2. 11. 이 모 부장 익명 댓글 사건 최초 언론보도 후 약 8주 경과

- 2. 23. 처장님의 당부말씀 코트넷 게시, 3. 11.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0호 의결 등 다양한 후속조치

■ 법관 익명 카페 활동의 양적, 질적 변화 및 민감 게시글 삭제에 관한 내부 논의 현황을 살펴봄

2. 카페 활동 추이

■ 2월 둘째주*(2. 11. 이 모 부장사건 언론보도) 전후 활동 量的 분석



** (2월 3주) 2. 22. 이 모 전 판사, 기자가 위 카페 존부를 자신에게 문의하였음을 공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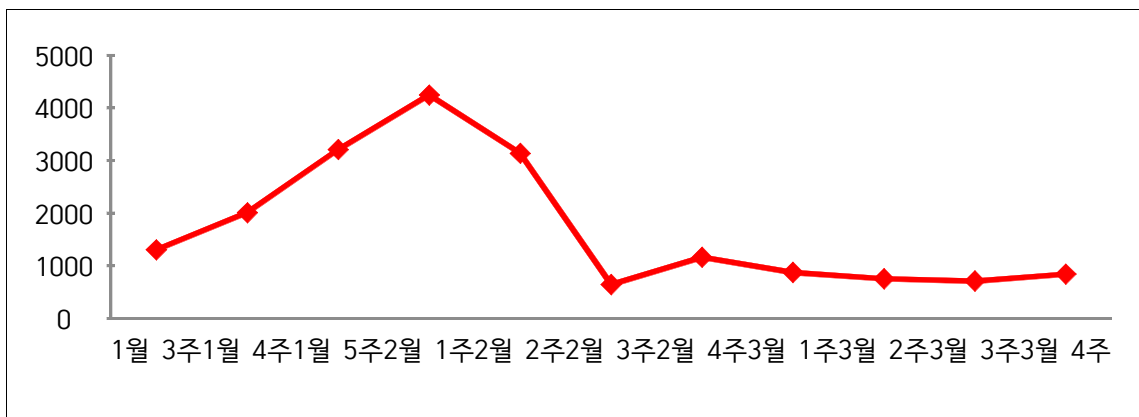
*** (2월 4주) 2. 23. 처장님, 법관에 대한 당부말씀 코트넷 공지 및 전체 메일

**** (3월 1주) 3. 1. 카페 회원, 민감 내용 게시글에 대한 삭제 방안 권유글 게시

***** (3월 2주) 3. 11.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제10호 의결



- 매주 30명까지 증가하던 가입자 수 ⇨ 6주간 12명 증가
- 8명의 운영자 중 1명 2. 21. 사임
- ‘방문회원수’ 지속적 감소 ⇨ 가입법관 중 상당수 카페 외면
 - 가입법관 중 실제 활동 법관수에 해당하는 방문회원수 6주새 70명 급감
- 총페이지뷰(총방문수) 급감 ⇨ 카페 활동 전반 위축



- 카페 실제 방문 총횟수로서 카페 활동에 대한 관심·열성도를 반영함

- 전체글 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복세 ⇨ 質的 분석 필요

■ 전후 활동 質的 분석 ⇨ 민감한 내용의 본글 및 댓글 추출

	전체 글수 (댓글포함)	민감 본글 (댓글)수	민감글 비율	주제
1월 3주	1,302	7(50)	3.8%	대법관 제청, 기업인 가석방, 검찰비판
1월 4주	2,010	4(57)	2.8%	땅콩회항, 판사구속, 상고법원
1월 5주	3,209	5(58)	1.8%	전관예우, 법원내 세대간 갈등, 상고법원
2월 1주	4,245	8(106)	2.5%	신○○ 대법관 퇴임, 대법관 제청, 부의 세습, 상고법원
2월 2주	3,137	4(36)	1.1%	원세훈 사건, 대법관 제청, 검찰비판, 언론과재벌
2월 3주	642	0	0%	
2월 4주	1,160	0	0%	
3월 1주	872	1(9)	1.0%	김영란법, 합의부장 기록 미검토(자진 삭제)
3월 2주	751	1(4)	0.5%	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
3월 3주	708	1(8)	1.1%	법관 평가와 법관의 독립
3월 4주	840	1(12)	1.4%	변협의 전 대법관 개업신고 반환



- 2월 3주 이후 민감한 글 수치상 미미

- 2. 11. 이 모 부장 사태 직후에는 여전히 '검찰 출신 대법관', '재벌2세'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룬 글이 일부 있었음
- 2. 22. 기자가 카페에 대하여 취재 중이라는 사실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후 민감한 글이 현저히 감소함 ⇨ 여론의 관심에 대한 부담이 결정적인 요소
- 순수한 업무 관련 노하우 공유 및 질문 글이 대다수이고, 일상생활 관련 글이 나머지를 이룸

- 민감글의 경우에도 내용 역시 매우 신중해짐

- 인사청문회, 변협 사태 등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전달하거나 법원 입장 옹호하는 내용이 절대 다수임
- 현재까지 유일한 예외가 김영란법 관련 글임(전문 별지1 첨부)

- 복사 및 스크랩 금지 기능 활성화

- 카페글 작성자는 자신의 글에 대하여 '스크랩' 또는 '복사'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사전에 정할 수 있음 ⇨ 이번 사태 후 종전과 달리 대부분의 글에서 스크랩 및 복사 금지 설정 추세

3. 향후 계획

- 카페 활동 반등 여부 면밀히 계속 관찰

- 최근 가입자수 및 게시글의 총수에서 미약하나마 반등 기미 있음
- 양적인 추이 외에도 민감한 글의 내용 및 카페의 분위기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모니터링 지속할 필요 있음

- 카페 전반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 시행 시까지 신속보고 태세 유지 필요. 끝.



별지 1 김영란법 관련 본글 및 댓글 전문

03.04. 08:33 제목 김영란법 국회에서 통과되었네요.

검경권력 비대화의 우려도 있지만, 저는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.
그나저나 앞으로 변호사들하고 식사는 못하겠네요.^^
식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각출하거나, 우리가 내야하는거겠죠?ㅋ

댓글 9

03.04. 08:40 저는 좀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

03.04. 09:46 제 측으로도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아요... 투명성, 공정성, 저도 극히 위 두 가지를 지향하지만, 김영란법으로 바뀔 정도의 비투명성, 비공정성이 아닌것 같아요. 우리 사회가요..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작용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지켜봐야겠지요.

03.04. 10:26 걸면 걸린다^^ 기자들이 불러 다니게 될 것이란 이완구 총리가 기자들에게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.

03.04. 11:30 근데 1회 100만원 상당 월 합계 300만원 상당 식사나 향응? 받아보신적이 있나요? 저는 회사생활 십수년 간 구경도 못했는데 제 인간관계가 이상한건지? 스폰서검사 스폰서 공무원 뿌리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는 대찬성입니다.

↳ 03.04. 15:51 1박 2일 정도 제주도에 가서 호텔에 묵고 골프를 치면 충분히 넘어갈 것도 같은데요. ^^ 물론 저도 아직 그러한 향응을 받아보지는 못 하였습니다. ^^;

03.04. 17:56 (바로위 제주도 댓글 관련)요즘도 간 크게 그런 향응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계신가요? 뭐 주변에 말하고 다니진 않겠지요. 당연히 잘못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.

↳ 03.05. 09:52 직급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. 그나마 매우 소수이지만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.

↳ 03.05. 12:44 그렇기에 예전에 관행으로 받아들여졌던 뇌물수수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부정되어 불처벌됨으로써 국민의 사법불신의 근원이 된 바로 그 관행(이라 쓰고 범행이라 칭한다)을 없애야 한다고 하위법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.

↳ 03.05. 11:39 법원보다는 검찰에 더 많아 보이긴 해요. 근데 예전에 들었던 농담 중에 "검사랑 밥 먹으면서 밥값 안 내는 사람은 기자뿐이다"라는 얘길 들은 적이 있네요.